최신 중국 동향

최신중국동향
vol.51
2010.12.20

::::: 목 차 :::::

1. 딜로이트 차이나, 중국 집값 지속 상승 전망
2. 중국 '1행3회', 내년 관리감독 중점업무 확정
3. 중국 네티즌수 3년 후 7억 명 돌파 전망
4. 중국사회과학원 내년 GDP 증가율 10% 전망
5.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기업 수 185배 증가

내용문의 : 장윤정 연구위원(동북아·물류 연구실)
theressa@idi.re.kr

본 내용은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(hanzhong.idi.re.kr)

인천발전연구원
Incheon Development Institute

최신 중국 동향
('10.12월 2차)

1. 딜로이트 차이나, 중국 집값 지속 상승 전망

○ 12월 13일 딜로이트(Deloitte) 차이나와 CPA 오스트레일리아(CPA Australia)는 금융위기가 경제와 상업에 미친 영향 및 중국 대륙과 홍콩의 경제 전망에 대해 중국 대륙, 홍콩, 아시아 기타 지역 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최신 조사보고서를 공동 발표함.

○ 응답자의 약 96%가 중국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여겼고 2010년 중국 대륙의 GDP 성장률이 5~10%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자가 58%를 넘었으며 약 23%는 10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
○ 경제 회복 부문에서 응답자는 중국 대륙과 홍콩 중 전자의 전망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함.

- 2011년 하반기에 중국 대륙의 경제가 전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0% 이상이었고 2011년 하반기에야 홍콩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응답은 약 38%에 불과함.

○ 딜로이트 차이나의 라이카얀 재개편서비스업무 아시아권 담당자는 다수의 응답자가 금융위기의 영향이 이전의 지역경제 하락보다 더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잠재된 몇 가지 리스크의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.

○ 주식, 부동산시장 등 미래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가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함.

○ 중국 대륙과 홍콩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약 75%의 응답자가 두 곳 모두 현 수준의 집값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함.

2. 중국 '1행3회', 내년 관리감독 중점업무 확정

○ 중앙은행,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(은감회),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(증감회),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보감회), 외환관리국이 13일 금년 연말 및 내년의 중점업무를 확정함.

○ 저우샤오촨(周小川) 중앙은행 총재는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 유지와 경제구조 조정과 인플레 기대 관리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잘 처리하고 금융 조정의 목적성, 유연성, 유효성을 키우며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물가 안정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둬야 한다고 지적함.

○ 이와 함께 '전체적인 안정, 적절한 조절, 구조 최적화' 요구에 따라 유동성을 잘 장악하며 신용대출 자금이 실물경제, 특히 '삼농(농촌·농업·농민)'과 중소기업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하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지적함.

○ 류밍캉(劉明康) 은감회 주석은 지방 융자플랫폼의 신용대출 리스크 방지 및 해소업무를 위해 전방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하며, 은행과 비은

행 금융기관 간 부당한 협력을 제지하고 신용대출 자산이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힘.

○ 상푸린(尙福林) 증감회 주석은 시장의 기초적인 제도 수립을 강화하여 시장 체제 및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시장 관리감독을 개진하며 시장 개혁 및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.

○ 또한 다차원적인 자본시장 체계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직접 융자수준을 높이고 장외시장, 증권시장, 선물시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힘.

○ 우딩푸(吳定富) 보감회 주석은 보험업의 전략적 조정과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질서가 근본적으로 호전되도록 시장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상환능력 관리감독의 강도를 높여 보험회사의 자본제약을 강화하고, 자본운영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.

○ 이강(易綱) 외환국 국장은 역외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'핫머니' 등 비정상적인 역외자금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단속하여 국가의 역외 경제·금융 안전을 유지하고, 또한 외화보유액 경영관리를 개선하여 보유외화의 자산가치 보장과 증가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.

3. 중국 네티즌수 3년 후 7억 명 돌파 전망

○ DCCI 인터넷 데이터센터가 발표한 2010년 중국 인터넷 조사 결과에 따르면, 향후 몇 년간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 중국인의

반수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터넷 소비도 고속 성장세를 보여 2013년 인터넷 소비가 2조 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이와 함께 올해 말 중국 네티즌 수는 4억 6,900만 명으로 네티즌 비율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30%를 넘어서 35%에 달할 전망이며, 또한 Web 2.0시대가 열리면서 중국 네티즌 수는 3년 후 7억 1,800만 명에 육박해 네티즌 비율이 52.7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
○ 네티즌의 인터넷 소비의식이 강해지면서 인터넷 소비가 고속 성장세를 보여 2010년 상반기 인터넷 소비규모는 4,734억 위안에 달했으며, 하반기를 포함한 2010년 한 해는 1조 1,594억 위안, 2013년에는 2조 위안을 초과할 전망임.

○ 또한 인터넷 쇼핑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011년 인터넷 쇼핑지출이 인터넷 소비총액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.

○ 관련업계인사는 현재 일용 소비재(FMCG)가 인터넷 거래품종 중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, 현재 중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즈푸바오(支付寶)는 이베이(eBay) 소유의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페이팔(PayPal)을 제쳤다고 밝힘.

○ 올해 9월 말까지 즈푸바오의 회원가입 수는 5억 명을 넘었고 하루 평균 거래액이 20억 위안, 거래건수가 700만 건에 달한 데 반해 페이팔의 올해 3분기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388만 건에 불과했다고 밝힘.

4. 중국사회과학원 내년 GDP 증가율 10% 전망

○ '2011년 <경제청서> 발표와 중국 경제형세 분석 및 예측 세미나'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의 왕퉁싼(汪同三) 소장은 2010년 GDP 성장률이 9.9%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2011년에는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가 크게 변하지 않고 거시조정 정책 강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강력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져 2010년과 비슷한 10%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힘.

○ 왕퉁싼 소장은 현재의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제시함.

- 첫째, 금융위기 이후로 내수 견인형 성장모델이 강화되었지만 2008년부터 시행한 확장정책으로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특성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내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 보강되고 민간투자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.

- 둘째,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고 복잡하여 중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.

- 셋째, 거시조정정책 강도가 중국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 가운데 중앙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발표함.

- 부동산 투자가 도시고정자산 투자의 2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제조업 투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조정은 경제에 하강압력으로 작용함.

- 넷째,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부채조달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리스크 확대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으며, 지방 융자플랫폼 정돈조치가 시행되면 고정자산투자 속도도 다소 느려질 것으로 예상됨.

○ 왕퉁싼 소장은 또한 2010년과 2011년 중국의 CPI 동기대비 상승률이 각각 3.2%와 3.3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
○ 천자구이(陳佳貴)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부 주임은 내년 거시조정은 '안정'을 최우선에 두고, 정책 안정을 주된 기조로 삼아 지나치게 긴축하지도, 무분별하게 2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서도 안 되며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거시조정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함.

5.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기업 수 185배 증가

○ 중앙은행은 국제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지역을 대규모 확대한 데 이어 시범기업 수를 또다시 대폭 확대함.

○ 6일 중앙은행은 공고를 통해 6만 7,359개 기업이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실시에 참여했다고 발표함.

- 이전에는 시범기업이 365개에 불과했으나 현재 6만 7,359개로 늘어나 185배나 확대됨.
- 업계 인사는 이에 대해 위안화 무역결제 서비스가 탄력을 받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힘.

○ 중앙은행의 공고에 따르면, 인민은행, 재정부, 상무부, 해관총서, 세무총국,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(은감회)의 공동 심사를 거쳐 베이징(北京), 톈진(天津), 네이멍구(內蒙古), 랴오닝(遼寧), 상하이(上海), 장쑤(江蘇), 저장(浙江), 푸젠(福建), 산둥(山東), 후베이(湖北), 광둥(廣東), 광시(廣西), 하이난(海南), 충칭(重慶), 쓰촨(四川), 윈난(雲南) 등 16개 성(자치구,

직할시)의 6만 7,359개 기업을 위안화 국제무역 결제 시범기업으로 확정함.

-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무역 결제 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하고 무역과 투자 편리화도 촉진될 것이라고 밝힘.

○ 롄핑(連平)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시범 수출기업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위안화 국제무역 결제 서비스가 다시 한 번 '대약진'한 것이라며 시범기업 수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지역범위도 연해 도시에서 변경무역지대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힘.

○ 현재 위안화 국제무역 결제 금액의 85% 이상이 수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수출 시범기업 수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또 중장기 위안화 절상 기대로 해외 위안화 수요가 상대적으로 왕성하기 때문으로 풀이됨.

참고자료

1. 张颖，德勤：中国房价仍会上涨（机构报告），国际金融报，2010-12-14
2. 综合报道，明年监管工作重点 一行三会将严管信贷资金，中国证券网，2010-12-14
3. 夏毅，中国网民数三年内超7亿 网络消费将超2万亿，中新网，2010-12-07
4. 方烨，社科院预测明年GDP增长10%，经济参考报，2010-12-08
5. 曹金玲，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企业扩容185倍，第一财经日报，2010-12-07